

방 승 진 (아주대학교)

비전문가에 의한 각의 3등분과 페르마정리의 증명

우리나라도 수학이 대중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비전문가들이 수학 주제를 연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 현재 실정은 어떠한지,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 기초 조사를 한 결과로서 결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시발 자료로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우선 최근에 많이 인터넷에 떠오르고 있는 임의의 각의 삼등분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간단한 증명을 리뷰해 보았다.

외국의 경우는 인터넷을 조사한 것으로 상황 전체를 판단할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비록 정설은 아니지만 열정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비전문가에 대한 수학회 차원의 배려와 도움은 수학대중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김 향 숙 (인제대학교)

창의력으로 통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수학

추상적인 수학을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수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는 현재로서는 컴퓨터이다. 컴퓨터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은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화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통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학 학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의 시각적 조작적 기능은 이해시키기 힘든 추상적인 학문인 수학을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컴퓨터 공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수학교육에 활용하려는 사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컴퓨터가 현재의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수학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